

새 책

▶관찰지만 관찰합니다(시린 글·사진)=제주에 온 작가가 제주 섬에서 보내는 시 편지다. 살기 위해 제주에 온 그는 제주 자연과 사람, 삶에 위로받으며 써내려간 시에 직접 찍은 사진을 함께 실었다. 그 안에는 그가 매일 마주하는 바다와 길, 골목과 마을, 숲과 오름, 제주 삼촌들이 담겼다. 그가 재미와 위로, 평화를 발견해 온 일상이 다른 이의 삶을 토닥인다. 대순바람. 1만4800원.

▶낭이와 타니의 시간 여행(김진철 글·누니모 그림)=세계지질공원인 제주 수월봉의 이야기가 아이들을 위한 동화가 됐다. 수월봉의 탄생부터 그 안에 얽힌 전설까지, 화산폭발로 세상 밖에 나온 땅속 마그마마을의 '낭이'와 '타니'가 수월봉의 일대기로 안내한다. '화산학 교과서'라 불리는 수월봉의 지질학적 가치는 물론 아름다운 풍경과 사람들 이야기, 아픈 상처를 남긴 역사도 만날 수 있다. 한그루. 1만5000원.

▶시민불복종 줌 아는 10대(하승우 글·방상호 그림)=주인공인 삼촌과 중학생 조카가 '토론의 장'에서 한 판 붙었다. 주제는 '시민불복종'. 역사적으로 크고 작은 사례를 되짚으며 부조리한 제도, 잘못된 법을 고쳐 나가려는 깨어 있는 시민의 용기에 주목한다. 사회 변화를 위해 청소년이 해 왔던 불복종 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현실적인 실천 방안도 모색한다. 풀빛. 1만3000원.

▶열어둠, 일터로 나가다(허준주 지음)=2017년, 열어둠 현장실습생이 잇따라 목숨을 잃었다. 그 안에서 제주 직업계고 학생이던 이민호 군도 있었다. 현장 실습을 하던 중 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로 숨진 이 군과 같은 또 다른 열어둠들의 삶을 들여다봤다. 저자는 이들의 죽음을 단지 기업의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한다. 누가 이들을 일터로 내몰았는지, 이런 일터를 만든 것은 누구인지 묻는다. 후마니타스. 1만5000원.

▶시인의 시작(강성은 외 99인 지음·시요일 엮음)=국내 첫 시 큐레이션 앱 '시요일'이 한 데 낫은 시선집이다. 김소월에서 황인찬까지, 김혜순에서 문보영까지, 시를 쓰려고 하는 이들에게 꿈의 이름인 시인 100인의 '시작(始作)'이자 '시작(詩作)'을 담았다. 시인을 향한 첫걸음에는 떨림과 설렘이 전해진다. 신춘문예 발표를 기다리던 시인, 그가 펼쳐나간 자신만의 시 세계의 원형을 고스란히 내보인다. 미디어창비. 1만2000원.

▶세상이 궁금할 때 빅 히스토리(신시아 브라운 지음·이근영 옮김)='우주는 어떻게 시작됐을까', '지구 밖에도 생명이 있을까'처럼 한번쯤 궁금했을 '과학적 기원 이야기'를 담았다. 천문학과 물리학, 화학, 인문학 등의 수많은 학문을 빌려 '빅 히스토리'를 이루는 지식과 정보를 풀어놓는다. 그 끝은 개개인이 우주의 모든 변화와 연결된 존재라는 일깨움이다. 해나무. 1만6800원.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이상세계 향한 열망, 현실에 놓인 절망

거폐이 '강남 3부작' 심규호·유소영 번역

창장 이남 강남 공간적 배경 이상적 삶에 대한 욕망 그려

중국 창장(長江) 이남 지역의 총칭을 뜻하는 강남(江南). 거대한 창장이 흐르면서 봄과 여름, 겨울까지 비가 내리는 강남은 몽롱한 분위기, 우거진 수풀, 복사꽃과 매화 등 온갖 꽃들, 쌀과 고기가 넘쳐나는 풍요한 삶으로 표상된다.

장수(江蘇)성 출신으로 칭화대학 중문과 교수인 거폐이(格非)는 어린 시절을 창장 남쪽의 작은 마을에서 보냈다. 그는 어머니를 따라 강북 외곽만니택에서 새해를 맞이한 일이 있다. 그곳 사람들은 외할머니 초가 앞 대나무 숲에 몰려와 그를 보며 외쳤다. "강남 사람이 왔어!" 기쁨과 신선함이 느껴지던 그들의 말투가 2015년 마오둔문학상 수상작인 그의 이른바 '강남 3부작'을 낳았는지 모른다.

1990년대 중반부터 구상해 2011년 완성한 대작인 '강남 3부작'이 제주국제제 심규호 석좌교

수와 제주대 통역대학원 유소영 강사의 번역으로 나왔다. '복사꽃 그대 얼굴'(심규호 역), '산하는 잠들고'(유소영 역), '강남에 봄은 지고'(유소영 역)로 앞서 중국 문학 작품 등을 60~70여 권씩 국내에 소개해온 역자들의 노고가 전해진다. 1부는 '복사꽃 피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다른 역자에 의해 출간된 적이 있지만 2-3부는 이번에 처음 우리말로 옮겼다. 3부작은 강남을 공간으로 저마다 하나의 완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혈연으로 맺어진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서로 다른 주인공 남녀의 이상적인 삶 또는 사회에 대한 욕망과 절망적 회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연계된다.

이 소설은 거폐이의 말처럼 강남 퇴직관리 집안의 아가씨인 루슈미와 혁명당원 장지위안의 애절한 사랑 등 애정을 소재로 했으나 이 상세계에 대한 열망, 실현되지 못하는 유토피아가 핵심 주제다. 주인공들은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방



황하고 끝내 비극으로 치닫는다.

심규호 교수는 20세기 초엽(1부), 1950~60년대(2부), 1978년 개혁개방 이후(3부)를 배경으로 한 이 작품을 '강남몽(江南夢)의 연대기'로 불렀다. 단순히 근대에서 지금까지 100년의 역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작중 인물들이 꿈꾸는 이상세계가 고대부터 이어져온 이상향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봤다. 역자는 '산하는 잠들고'의 마지막 구절을 인용하며 비록 꿈이지만 투쟁, 부패, 탐욕조차 없는 사회를 그려냈듯, 우리 역시 여전히 보다 이상적인 곳을 만들기 위해 달려가는 중이 아닐까라고 했다. 다름, 각 1만6000원.

진선희기자

24절기로 풀어낸 '삶의 사용설명서'

유중반의 '때를 알다 해를 살다'

국어사전에 풀어놓은 절기(節氣)는 '한 해를 스물넷으로 나눈, 계절의 표준점이 되는 것'이다. 생태교육운동을 벌여온 유중반씨는 '기'의 한자어에 주목하며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절기가 단순한 시간 나눔이 아니라고 본다. 그보다는 '해가 만들어낸 자연 흐름이자 생명 기운의 흐름을 스물네 가지 이름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절기는 인간과 다른 생명이 살아가야 할 순리를 따르는 생명법이고 우주 자연의 섭리이자 모든 생명살이의 참모습이다. 그는 우리가 흔히 철들었다거나 철이 없다고 하는데 이는 자연의 흐름, 즉 절기(때)를 알고 사느냐 마느냐를 뜻한다.

그가 쓴 '때를 알다 해를 살다'

는 절기로 풀어낸 '삶의 사용설명서'다. '생명살이를 위한 24절기 인문학'이란 부제가 달려 '나는 어떻게 살도록 만들어졌을까'에 대한 대답을 절기에서 찾고 있다. 생명살이를 위한 절기살이, 24절기 절기살이로 나눠 엮었다.

한 해의 절기가 겨울, 봄, 여름, 가을 순이라는 저자는 겨울을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모든 일은 준비 없이 시작할 수 없는 법. 겨울은 다음에 올 계절에 꽃피어 열매를 맺고 키우고 익히기 위한 힘을 만드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절기는 해마다 반복되지만 똑같지 않고 늘 새롭다. 절기로 산다는 것은 날마다 새롭게 사는 것이다.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은 삶은 철부지, 철 없는 삶, 철 모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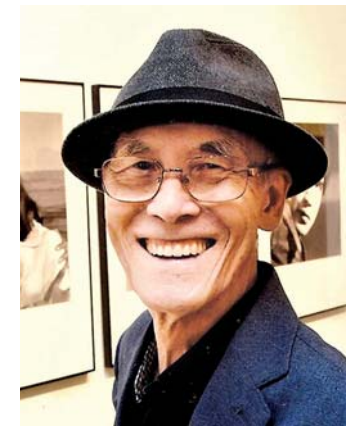


삶이나 다름없다.

밤이 제일 길다는 동지. 밤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다가오듯 동짓날 깊은 침묵의 밤은 새로운 날을 예고한다. 개구리와 벌레가 깨어난다는 경칩. 못생명들이 봄을 준비하듯 우리도 깨어나 자기 삶의 땅을 알고 준비해야 한다. 지금 나는 어떤 때이며, 내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은 어떤지를 일러준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1만6000원.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저자와 함께 신간 낸 제주출신 김종원 평론가 "한국영화 100주년 기점 달라져야"



지난해 영화평론 60년을 맞은 제주출신 김종원 선생이 오래된 영화 속 장면들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다. 도서출판 작가 제공



2019년은 한국영화 100주년 이 되는 해. 1919년 10월 27일 신극좌의 활동사진연쇄극 '의리적 구토'가 서울 단성사에서 개연된 날이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상영된 한국영화가 있다면, 제주가 고향인 영화평론가 김종원은 같은 날 '의리적 구토'에 앞서 선보인 실사영화 '경성 전시의 경'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그의 '영화와 시대정신'은 그런 목소리를 담은 글로 열린다.

김종원 평론가는 1959년 월간 종합지 '자유공론' 11월 호에 '한국 영화평론의 위기와 과제'를 발표하며 평론을 시작했다. 이번에 나온 단행본의 부제에 '한국영화 100년, 나의 영화평론 60년'이란 부제가 달린 이유다.

영화와 역사, 영화작가·배우론, 영화 일반론으로 나눠 실린 글은 약 40편이다. 두 번째 평론집 '한국영화사와 비평 집점'

(2007) 이래 여러 지면에 발표된 걸 추려 모았다. 끄트머리에는 직접 가려낸 '김종원의 한국 극영화 100선'을 덧붙였다. 1926년 나운규 감독의 '아리랑'에서 할리우드 장벽까지 넘은 봉준호 감독의 2019년 개봉작 '기생충'까지 다룬다.

60년 넘게 영화평론을 해온 그이지만 출발은 시(詩)였다. 그는 '해방 이후 처음 등장한 제주 출신 문인'이다. '문학과 영화 사이'에서 그가 "서사적 이미지가 강한 시에서 영화가 필요한 함축성과 여운의 향기를 발견한다"고 했을 때 시인의 면모가 느껴진다.

'한국영화의 기점은 '경성 전시의 경'이다'에서는 팔손을 낀 나이에도 '현역'으로 한국영화사 연구에 바치는 열정이 전해온다. 그는 이 글에서 해방 전 우리 영화역사를 기술할 때 '조선영화'가 아니라 '한국영화'로 표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경성 전시의 경'의 위상을 바로잡는다. 단성사 사장인 박승필이 제작을 맡았고 일본 미야가와 소우노스케 촬영으로 추정되는 이 영화는 10여 분에 걸쳐 남대문 정거장, 한강 철교 등을 담았다. 저자는 이를 "한국영화의 원류로 평가되어야 한다"며 "앞으로의 과제는 '의리적 구토'의 그늘에 가려 역사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경성 전시의 경'의 위치를 제자리로 되돌려놓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작가, 2만원.

진선희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일반여행업등록 제234호

모두의골프-제주지향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따라 요금이 달라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따라 요금이 달라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따라 요금이 달라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따라 요금이 달라집니다.

모두투어 전문판매대리점(가자항공여행사) T. 747-0404, 744-6068

공통사항 - 양복항공권(전일정호텔(2인1실),관광지입장료,일정 식사포함,최소 10명 출발가능,인솔자동행(부분별),유류할증료포함,1억원 여행자보험,불포함 - 비자대(부분별),기사/가이드경비(부분별),현지택편관광